



## 제15강

# 학술적 글쓰기의 절차 2

---

담당교수 : 고성환 교수 (국문과)



### 1) 인용

#### (1) 인용의 개념과 목적

- 인용은 논문을 작성할 때 필자의 논지를 증명하기 위한 논거나 남의 글에 대한 비판의 자료로 삼기 위해 문헌이나 다른 사람의 논저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것이다.
- 논문은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참고자료와 다른 사람의 글이 인용되기 마련이다.
- 논문의 생명인 독창성이 충분한 객관성을 확보하여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용이 필요하다. 즉 자신과 동일한 입장에 있는 권위 있는 주장이나 구체적인 자료를 인용하여 자신의 논지를 입증할 수도 있고, 자신과 다른 입장에 서있는 사람의 글을 인용하여 이를 해석하고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논의를 보다 선명하게 전개할 수도 있다.

## 5. 인용과 주석 및 참고문헌 작성

글쓰기

### 1) 인용

#### (2) 인용의 종류와 방법

- 원전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 논거를 삼는가 아니면 글 쓰는 이의 표현으로 바꾸어 논거로 삼는가에 따라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으로 나뉜다.

#### 가. 직접인용



직접 인용은 원전대로 인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자의 필요에 따라 원문에 어떤 부호를 붙이거나 원래 있던 어떤 부분을 생략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러한 사실을 밝혀 주어야 하고, 또 인용문의 일부를 생략했을 경우에도 생략 사실을 표시해 주어야 한다.

## 5. 인용과 주석 및 참고문헌 작성

글쓰기

### 1) 인용

#### 가. 직접인용

① 다음과 같은 경우 직접인용을 한다.



㉠ 문헌이나 다른 사람의 저서의 내용을 제1차 자료, 즉 연구의 대상이 되는 자료로 사용할 때:

『석보상절』이나 『월인석보』를 대상으로 연구할 때 이들 문헌에서 필요한 부분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나 박목월의 시 「나그네」를 분석하기 위해 이 시의 전문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

- ㉡ 다른 사람의 얘기를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이나 논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할 때
- ㉢ 원전의 구체적 문장이나 핵심개념을 인용하는 것이 중요할 때

## 5. 인용과 주석 및 참고문헌 작성

글 쓰기

### 1) 인용

#### 가. 직접인용

#### ② 직접인용의 방법



㉠ 같은 문단 안에 큰따옴표 속에 인용문을 삽입할 수 있다.

정약용은 ‘노인일쾌사(老人一快事)’라는 시의 한 구절에서  
“나는 조선 사람이니, 즐겨 조선시를 지으리.”라고 말했다.



### 1) 인용

#### 가. 직접인용

#### ② 직접인용의 방법



㉠ 긴 부분을 인용할 경우에는 독립된 문단으로 구성하여 본문에 삽입할 수 있다.

신민들은 귀족을 탐욕스런 기생자, 새로운 특별세의 고안자로 간주하였다. 뷔킹은 귀족에 대한 하층 신분들의 불만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귀족은 시민과 농민을 보호해야 하는 본원적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귀족들은 거꾸로 자신의 힘을 이들 신민들에게 돌렸다.  
현재의 권리와 의무 사이의 평형은 무너져 버렸다.  
(밑줄은 인용자 표시)

- ❖ 인용문은 본문과 다른 글씨체로 쓰고, 글씨 크기도 달리하며 인용 문단 전체를 본문보다 안으로 들여쓰기를 하여 본문과 쉽게 구별되게 한다.



## 5. 인용과 주석 및 참고문헌 작성

글쓰기

### 1) 인용

#### 나. 간접인용(풀어쓰기)

① 다음과 같은 경우 간접인용을 한다.



- ㉠ 원전의 표현방식보다 주장이나 결론 등 내용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
- ㉡ 같은 내용을 원저자보다 더 명확히 표현할 수 있을 때

### 1) 인용

#### 나. 간접인용(풀어쓰기)

##### ② 간접인용의 방법

: 다른 사람이 발견한 사실이나 자료를 인용자의 말로 재구성한다.

김천택은 중국의 노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노래도 마땅히 사람의 마음과 자연을 감동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보았다. 『청구영언(靑丘永言)』의 서문에서 정내교는 시와 노래가 원래 하나인데, 이 둘이 분리된 것이 후대의 폐단이라고 하면서 한시와 시조를 대등하게 보아야 한다는 논지를 전개했는데 이는 곧 김천택의 생각이기도 하였다.



### 1) 인용

#### (3) 인용할 때의 유의사항

- ① 꼭 필요한 경우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분량만을 인용한다.
- ② 인용하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바탕으로, 적절한 문맥에서 정확하게 인용한다. 남의 글을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다른 연구자의 논의를 존중하도록 한다.
- ③ 공신력이 있는 자료와 글을 인용해야 한다. 논거로서의 충분한 권위와 진실성, 학술적 가치를 갖춘 것을 택하여 인용하도록 한다.
- ④ 주석을 통해서 인용된 글의 출처를 반드시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 ⑤ 필자 자신의 논의와 인용해온 논의가 분명히 구분되도록 한다. 다른 사람의 견해를 표절하는 비윤리적인 일이 없도록 한다.
- ⑥ 연구자가 직접 확인한 일차적인 전거나 일차 자료를 인용한다. 부득이 다른 사람이 인용한 내용을 다시 인용하는 경우에는 재인용한 출처와 원래의 출전을 함께 밝혀야 한다.

### 2) 주석

#### (1) 주석의 개념과 목적

- 논문을 작성할 때 본문에는 속하지 않아 논지 전개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 논지를 효율적으로 전개시키거나 논지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본문과 별도로 삽입되는 추가적인 정보를 주석이라고 한다.
- 주석은 인용문의 출처를 밝히거나 논지 전개에 보충이 되는 설명을 하는 데에 이용된다.
- 본래 주석은 본문의 일부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논문 본문을 읽어나갈 때에 주석의 내용을 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논지 전개에 장애가 생긴다거나 문장의 흐름이 어색해져서는 안 된다.
- 주석은 논문에서 부차적이고 보조적인 기능만을 할 뿐이기 때문에 간결하게 작성해야 한다.

### 2) 주석

#### (2) 주석의 종류와 작성 방법

- 주석의 목적에 따른 분류: 참조주와 내용주

① 참조주 : 인용의 출처를 밝히기 위한 주석

② 내용주 : 본문의 어느 일부분에 대하여 개념을 더욱 명백하게 하거나 한정시키기 위해 보충설명을 위한 주석

### 2) 주석

#### (2) 주석의 종류와 작성 방법

- 주석의 위치에 따른 분류  
: 내각주, 외각주, 미주/후주

##### ① 내각주

: 출처 표시나 보충설명을 본문의 해당 부분 뒤에 괄호를 하고 주석을 다는 것.

##### ② 외각주

: 각주 번호 달린 본문 밑에다가 일정한 순서로 주석을 다는 것인데,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방식이다.

##### ③ 미주/후주

: 논문의 각 장(章) 뒤나 논문 전체의 뒤에 주석을 몰아 다는 방식인데, 논문을 읽는 독자들이 일일이 찾아 읽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는 단점이 있어서 별로 쓰이지 않는 주석 방식이다.

### 2) 주석

#### 가. 외각주

본문 밑에 각주를 다는 외각 주는 본문의 해당 부분 끝에 번호를 달고 그 번호의 순서대로 작성한다.

각 학문 분야나 학술지 등에 따라 특별히 요구되는 방식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야 한다.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및 순서, 사용되는 부호 등은 각각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특별히 요구되는 방식이 없을 경우 일반적인 외각주의 작성 방법의 형식과 예는 다음과 같다.

- ✓ 저서의 경우: 저자명, 저서명, 출판지명: 출판사명, 출판연도, 인용 면.
- ✓ 논문의 경우: 필자명, 논문명, 게재지명과 권호수, 출간학회, 출판연도, 인용 면.

### 2) 주석

#### 가. 외각주

- 1) 이기문, 『국어학개설』, 민중서관, 1955, p. 369.
- 2) 이기백,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 『이화사학연구』 6.7 합집, 1973, pp. 7-12.
- 3) I.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Hamburg: Verlag von Felix Meiner, 1856, p. 112.



### 2) 주석

#### 가. 외각주

- ❖ 논문과 저서를 구분하는 방식은 학문 분야에 따라, 또는 학술지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 ❖ 논문을 큰따옴표로 표시하고, 저서를 겹낫표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이 둘을 각각 홑낫표와 겹낫표, 또는 작음따옴표와 큰따옴표를 써서 구별하기도 하고, 논문에만 큰따옴표를 쓰기도 한다.
- ❖ 서양 책의 경우에는 서명(書名)을 이탤릭체로 써서 논문과 구별해 준다.
- ❖ 서양 책에서는 출판사 앞에 출판사의 소재지를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국내에서 출간된 책의 외각 주에서는 이를 생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2) 주석

#### 가. 외각주

- ❖ 출판연도를 저자명 뒤에 쉼표 없이 괄호 속에 표시하기도 한다.

이기문(1955), 『국어학개설』, 민중서관, 1955, p. 369.

- ❖ 약식 주석 : 동일한 논저가 주석에서 반복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지 사항들을 모두 다 기록하지 않고 약식 부호를 사용하여 간략히 적는 약식 주석의 방식을 사용한다.



### 2) 주석

#### 가. 외각주

*Ibid.* : 바로 위의 주석에서 서지 사항이 완전하게 소개된 문헌을 바로 이어 인용하면서 인용 면만 달리하는 경우에 쓰인다. ‘상게서(上揭書), 상게논문(上揭論文)’ 또는 ‘위의 책, 위의 글’ 등으로 쓰기도 한다.

*Op. cit.* : 바로 위에서가 아니라 그 앞의 어디에선가 인용했던 문헌을 다시 인용하는 경우 저자명 또는 필자명 다음에 이 부호를 사용해 약식으로 작성한다. ‘전게서(前揭書), 전게논문(前揭論文)’ 또는 ‘앞의 책, 앞의 글’ 등으로 쓰기도 한다.

*Loc. cit.* : 한 번 인용한 것을 완전히 반복해서 인용할 경우에 쓴다. 따라서 실제로는 좀처럼 쓰이지 않는다.

### 2) 주석

#### 가. 외각주

- 1) 이기문, 『국어학개설』, 민중서관, 1955, p. 369.
- 2) *Ibid.*, p. 380.
- 3) 이기백, 「한국사의 보편성과 특수성」, 『이화사학연구』 6·7합輯, 1973, pp. 7-12.
- 4) *Loc. cit.*
- 5) 이기문, *op. cit.*, p. 120.

### 2) 주석

#### 나. 내각주

외각주와 약식 주석의 방식이 오래 쓰여 왔으나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

- ① 인용 문헌의 출전 표시만을 위한 참조주를 외각주로 처리하는 것은 독서에 큰 불편을 준다.
- ② 약식부호들은 독자뿐만 아니라 필자에게도 혼동을 일으키기도 한다.
- ③ 동일한 저자·필자의 여러 문헌들을 반복해서 인용할 경우에는 약식부호의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기도 하다.

- ❖ 그래서 최근에는 내각주 방식이 많이 사용된다. 내각주는 본문 속의 해당 부분에서 인용을 하는 방식의 주(註)이다. 주로 간접인용이나 극히 압축된 요약을 제시하면서 그 출전을 해당 부분에 바로 밝히는 방식이다. 내각주를 쓰면 인용문이나 참조 부분의 출처를 각주에서 따로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글의 체제가 간명해지고 결과적으로 독서의 편의도 꾀할 수 있다.

### 2) 주석

#### 나. 내각주

(예1) 품사 분류의 원칙으로 의의적 범주와 기능적 범주가 있다 (이희승, 1995: 369).

(예2) 언어기호가 자의적이라 함은 이미 Saussure(1916: 100 ~106)에서 지적된 바 있다.

(예3) 광양만의 해조류에 관한 조사는 독자적으로 수행된 것이 없고 상기(上記) Kang(1966)에서 채집지가 여수 오동도 등지로 기술된 것과 Noda(1966)가 중국 동북부 및 한국 해조류를 보고하면서 여수산으로 지적한 것이 조금 있을 뿐이다.



### 2) 주석

#### 나. 내각주

- ❖ 내각주 방식에서 괄호 속에 연대를 넣은 것은 해당 저자 또는 필자의 저서나 논문이 간행된 연도로서 해당 문헌을 대치시킨 것이다.
- ❖ 동일한 논저자의 문헌을 여럿 인용하는 경우에는 약식부호로써는 불가능하지만, 내각주 방식을 따르면 이희승(1955), 이희승(1956) 등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같은 해에 나온 두 편 이상의 논저를 인용할 경우에도 이희승(1955a), 이희승(1955b) 등으로 구분해서 표시할 수도 있다.
- ❖ 저자명 또는 필자명과 간행연도로,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인용 페이지로 표시하면서 본문 안에서 주석으로 처리하는 내각주의 체재에서는 자연히 참고문헌란에서도 이에 맞추어 저자명 다음에 간행연도를 괄호 속에 넣어 주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체재가 된다.

### 3) 참고문헌

#### (1) 참고문헌의 개념과 목적

- 논문이나 책을 쓸 때 참고한 논문, 저서, 기사, 자료집 등의 서지사항을 논문이나 저서의 말미에 일정한 형식에 따라서 제시하는 것을 ‘참고문헌 (參考文獻, Bibliography 또는 References)’이라고 한다.
- 학문 분야에 따라서는 인용했거나 참조한 논저들을 주석란에서 완전주석을 하여 소개하기 때문에 참고문헌란을 생략하기도 하지만 참고문헌란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 참고문헌은 논문 작성에 이용한 자료와 연구 문헌을 밝히는 구실을 할 뿐 아니라 독자에게 관계 문헌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 3) 참고문헌

#### (2) 참고문헌 작성 방법

- 참고문헌란에 열거되는 논저들은 필자가 자기 논문에서 인용했거나 참조한 것들만 적는 것이 원칙이다.
- 참고문헌란에 열거되는 논저들은 그에 관계되는 서지사항들이 빠짐없이 다 수록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작성한 참조주로서의 외각주 형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성한다. 그러나 외각주와는 달리 각주번호, 인용 면을 쓰지 않으며 약식 기호도 사용하지 않는다.
- 논문 자료의 경우 논문이 실린 학술지에서 논문의 시작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를 기재한다.

### 3) 참고문헌

#### 가. 저서

저자명, 저서명, 출판지명: 출판사명, 출판연도.

- ❖ 저자명은 여러 사람이 공저했을 경우에는 그 저서에서 나열되어 있는 순서대로 이름을 다 밝히되, 그 사이에 가운뎃점을 한다.  
주석란에서 세 사람 이상이 공저했을 때에 첫 번째 사람 이름만 들고 그 뒤에 ‘외 몇 명’이나 ‘et al.’ 또는 ‘and others’를 붙이는 것과는 차이가 난다.
- ❖ 서양책의 경우에는 성과 이름의 순서로 나열하고, 성과 이름 사이에는 쉼표를 두는 것이 원칙이다

(예1) : Chomsky, Noam 또는 Chomsky, N.

### 3) 참고문헌

#### 가. 저서

저자명, 저서명, 출판지명: 출판사명, 출판연도.

- ❖ 같은 저자명이 계속 나열될 때에는 저자명을 생략하고 가운뎃줄만 치는 경우도 많다.
- ❖ 저서명은 외각주에서의 표시 방법과 동일하다. 즉, 우리나라를 포함한 한자 문화권의 저서는 일반적으로 겹낫표로 표시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큰따옴표를 쓰거나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기도 한다.  
서양 책의 경우에는 책이름을 이탤릭체로 써서 논문과 구별해 준다.
- ❖ 출판지명은 생략하기도 한다. 출판연도는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록한다. 출판연도 뒤에 전체 면수를 기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이지는 않다. 같은 논저가 2행 이상이 될 때에는 둘째 행부터는 왼쪽에서부터 3자(서양논저의 경우 8자)를 들여서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 3) 참고문헌

#### 나. 논문

필자명, “논문명”, 게재지명, 권호수, 출판연도, 게재면수.

- ❖ 논문명은 국문으로 쓰였건 서양어로 쓰였건 큰따옴표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 게재지명도 일종의 저서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여 국문의 경우에는 겹낫표를 쓰고 서양어인 경우에는 이탤릭체로 한다.





### 3) 참고문헌

#### 다. 참고문헌의 배열 원칙

- ① 국한문 문헌을 먼저 쓰고, 서양어 자료를 나중에 쓴다.
- ② 국한문 문헌은 필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하고, 서양어 자료는 성의 알파벳 순서로 수록한다.
- ③ 한 필자의 문헌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출간연도 순으로 배열한다. 그러나 한 필자의 단독 집필 문헌과 공동 집필 문헌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단독 집필문헌을 출간연도 순으로 배열한 후, 공동 집필 문헌을 적는다.
- ④ 한 필자가 같은 해에 여러 개의 논저가 있을 경우에는 연도 뒤에 ‘가, 나, 다’ 또는 ‘ㄱ, ㄴ, ㄷ’, ‘a, b, c’ 등을 붙여 주어 구별한다.

### 3) 참고문헌

#### 다. 참고문헌의 배열 원칙

고영근, 『단어·문장·텍스트(보정판)』, 한국문화사, 2004가.

고영근, “국어문법교육의 방향 탐색”, 『우리말연구』 15, 2004나,  
pp. 23-52.

고영근, 『북한의 문법연구와 문법지식』, 한국문화사, 2008.

고영근·구본관·시정곤·연재훈, 『북한의 문법 연구와 문법 교육』,  
박이정, 2004.

小倉進平, 『朝鮮方言 研究』, 東京: 岩波書店, 1944.

Bloomfield, L. *Language*,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33.

- ❖ 본문의 주석이 내각주 형식이었을 경우에는 출판연도를 내각주 형식과 유사하게 저자 뒤에 괄호로 제시할 수도 있다.

### 3) 참고문헌

#### 다. 참고문헌의 배열 원칙

고영근(2004가), 『 단어 · 문장 · 텍스트(보정판) 』, 한국문화사.

고영근(2004나), “국어문법교육의 방향 탐색”, 『 우리말연구 』  
15, pp. 23-52.

고영근(2008), 『 북한의 문법연구와 문법지식 』, 한국문화사.

고영근 · 구본관 · 시정곤 · 연재훈(2004),  
『 북한의 문법 연구와 문법 교육 』, 박이정.

小倉進平(1944), 『 朝鮮方言 研究 』, 東京: 岩波書店.

Bloomfield, L.(1933), *Language*,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교재 298쪽의 연습문제

Leech, Geoffrey(1974), Semantics, London: Hazell Waston and Veney.

이남순(1988) 국어의 격표지와 생략, 태학사.

유목상(1974), 통어론적 구성에 의한 어형성에 관한 연구,  
성곡논총 5, pp. 47-81.

송원용(2000), 현대국어 임시어 형태론, 형태론 2.1, pp. 1-16.

Elite, T. S.(1961), On Poetry and Poets, New York: The Noonday Press.

Hendricks, W. O.(1969), Three Models for the Description of Poetry,  
Journal of Linguistics 5-1, pp. 56-87.

홍재성(1999), 기능동사 구문 연구의 한 시각, 인문논총 41, pp. 135-173.

小倉進平(1931), 濟州道方言, 靑丘學叢 5, pp. 36-89.

### 교재 298쪽의 연습문제

송원용(2000), “현대국어 임시어 형태론”, 『형태론』 2.1, pp. 1-16.

유목상(1974), “통어론적 구성에 의한 어형성에 관한 연구”,  
『성곡논총』 5, pp. 47-81.

이남순(1988) 『국어의 격표지와 생략』, 태학사.

홍재성(1999), “기능동사 구문 연구의 한 시각”, 『인문논총』 41,  
pp. 135-173.

小倉進平(1931), “濟州道方言”, 『靑丘學叢』 5, pp. 36-89.

Elite, T. S.(1961), *On Poetry and Poets*, New York: The Noonday Press.

Hendricks, W. O.(1969), “Three Models for the Description of Poetry”,  
*Journal of Linguistics* 5-1, pp. 56-87.

Leech, Geoffrey(1974), *Semantics*, London: Hazell Waston and Veney.

수고하셨습니다.

